인터넷을 활용한 교육 주체간 커뮤니티 구현에 관한 연구 (학생 · 교사 · 학부모를 중심으로)

박종찬* · 이성현**

요 약

교육사이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교육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유료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 단계로 학습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의 사이트가 운영되고 신설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학습은 그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교육의 핵심 주체인 학생 · 교사 · 학부모에 대한 의사소통과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여 단순 학습이외의 인성교육까지 인터넷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의 3주체간에 필요로 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도출하여 각 대상별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와 이와 더불어 발생되는 사회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3주체간에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1. 서론

최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시장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닷컴기업들의 생존방안으로 크게 부상하고 있다. 이는 대상과 수요자가 분명하며 유료화를 통한 서비스로의 전환이 비교적 수월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외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정부규제가 풀림으로써 온라인 교육시장은 2002년에 약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업체에서 온라인 교육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업체들의 형태는 순수 온라인 기업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대형학원, 대기업, 대학, 보습학원, 학습지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이 기존의 컨텐츠나 운영 노하우, 또는 대규모 자본 등을 바탕으로 온라인 교육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교육사이트 개발업체를 상대로 한 교육솔루션 개발업체가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온라인 교육사이트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학습효과가 뛰어난 학습자료를 제공하여 유료회원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학습자료 이외의 다양한 흥미거리와 기능을 제공하여 보다 많은 네티즌들의 방문을 유인하고 있다.

*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강사

** (주) 싸인시스템 기획팀장

이처럼 온라인 교육시장이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인터넷만이 지니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받지 않는 고유의 특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온라인 교육은 학습자료 외에도 커뮤니티를 통하여 학습자들간에 많은 의견과 정보를 나눌 수 있으며 전문가와의 Q&A를 통해 학습자료에서 얻지 못하는 보다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집단간의 커뮤니티를 통해 그 집단에서 필요로 하는 많은 정보를 나눌 수 있는데, 예를들면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 과목별 커뮤니티를 들 수 있다. 비슷한 관심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는 프로그램으로 고정된 일반적인 학습자료보다는 훨씬 자신들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국내외에 이러한 커뮤니티만을 위한 사이트가 많이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사이트와는 달리 회원수에 의해 사이트 확장 가능성이 결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그들이 보유한 컨텐츠를 올리거나 다른 사이트에 있는 컨텐츠를 수집하여 한 곳으로 집중시키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의사 소통을 위해 회원 스스로가 사이트를 홍보하여 구전 효과를 증진시킨다. 그러므로 국내외 대표적인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반드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다양한 서비스와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커뮤니티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정확한 대상을 선택하고 대상에 맞는 서비스와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인터넷 업체의 큰 과제로 남아 있다. 대표적인 커뮤니티 사이트의 성공사례로 '모교사랑(www.iloveschool.co.kr)'을 들 수 있는데 이 사이트의 중요한 성공요인은 대상이 명확한 집단을 상대로 요구수준이 높은 부분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가족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사이트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www.myfamily.com), 이는 자신의 가족과 친척을 등록하여 생일 및 기념일 등을 기재하여 선물을 나누고 다른 가족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사이트이다. 이와 같이 현재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지만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커뮤니티의 대상이 포괄적이며, 서로간에 공통된 관심사나 요구사항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커뮤니티가 많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학교나 교사들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및 과제제출을 하고 있으며 에듀넷과 같은 전문 교육사이트에서 학년별, 대상별(학생, 교사, 부모)로 다양하게 컨텐츠와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국내의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이라는 포괄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교사나 학부모 역시도 학년 정도의 구분을 통해 모든 집단을 수용하는 형태이므로 그들이 꼭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서비스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상호간의 대상이 명백하고 공통된 목적을 가진 학생·교사·학부모의 커뮤니티를 구현하여 기존 교육사이트와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운영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이트 구축 모델을 찾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학생, 교사, 학부모 3주체는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가장 많은 상호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커뮤니티를 구현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교육적 의미와 현재 국내교육현황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한 교사들의 교육상황을 조사하여 현재 교육주체들의 요구사항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웹상에서 커뮤니티를 구현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능 및 방안을 수립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많은 참여를 통해 대규모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인터넷의 교육적 의미[1)]

인간 대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사회적인 경험을 학습이라고 할 때 면대면 수업은 그동안 가장 전형적이며 이상적인 수업의 형태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과 사용자수의 증가로 인해 교육부문에서도 공간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학습자, 교사, 학부모, 전문가, 학습 자원들을 서로 연결시켜줌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교실'을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학습은 면대면 수업 이상의 학습 효과를 창출한다는 증거가 제시됨에 따라(Harasim et al., 1995; Hiltz, 1988, 1995) 온라인 학습이 앞으로 교육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곳이라는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환경의 혁신적인 변화와 더불어 인터넷이 교육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해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2.1.1. 닫힌 학습에서 열린 학습으로의 전환

인터넷이 등장하기 이전의 매체들은 TV, 비디오, 슬라이드, CD-ROM, 인쇄물 등 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은 모두 닫힌 공간에서 한 사람만이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학습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며 이미 설정되어진 경로에 따라 수동적으로 따라가야 하며 교육의 본질인 상호작용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지식습득 이외의 인격형성이나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 등과 같은 부가적인 교육은 전혀 발생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적 효과는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즉, 단방향적인 이전의 매체들과 비교하여 인터넷은 학습자들에게 하나의 주제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지원한다. 또한 학교 수업에서는 교실내의 약 50여명 정도 닫힌 공간에서 수업시간 동안만 일어나는 교육자와 학습자, 학습자들간의 공동체가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인터넷에서는 지역, 나이, 성별, 인종, 학력 등에 제한없이 누구든지 들어오고 탈퇴할 수 있는 임의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환경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지 않아도 되는 공간속에서 얼마나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이봉재, 1998).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커뮤니티의 경우 익명의 다수를 대상으로 형성된 커뮤니티 속에서 발생되는 사회적인 문제점들 또한 최근 많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기존에 면대면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분명한 대상을 상대로 한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사라지고 방과후나 방학과 같이 면대면의 환경을 벗어난 시점에서 많은 상호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소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타 학급, 타 학교, 타 국가로 확대되어진 공동체를 형성하여 이들간의 공통 관심거리에 대한 토론이나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함께 일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인터넷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인터넷의 등장은 모든 학습자에게 일률적으로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강요해왔던 일종의 eke힌 학습에서 벗어나 학습자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학습자원들과 상호작용하고 그

1) 한국교육저널 1999. Vol. 26 No. 1, p.165~184 '학습 환경으로서의 웹이 주는 교육적 의미'의 내용 인용

결과, 학습자들은 똑같은 이해가 아닌 자신만의 의미와 지식을 구성하는 열린 학습으로의 전환을 부추길 수 있다.

2.1.2. 학습공동체 형성

인터넷의 출현은 지역간, 학교간 물리적인 거리를 좁혀주고 있다. 예를 들어 시골 학교나 섬마을 학교에서는 서적이나 각종 학습자료가 부진하고 도시 학생들에 대한 생활 환경과 문화를 잘 이해하거나 체험할 수 없다. 반면 도시 학생들은 시골이나 섬마을 학생들의 생활과 주변경관을 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은 이 두 집단간 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서로에게 필요한 자료와 토론을 주고 받으면서 이해의 격차를 좁히고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웹은 개인간 또는 집단간 상호작용을 지원함으로써 학습을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보는 새로운 관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학교들은 단절된 사회 환경에 속해있는 닫힌 의사소통 체제로 존재해 왔다. 학교의 문들, 그리고 울타리들은 학생들을 그 외부로부터 지키는 것뿐 아니라 세계로부터 학생들을 고립시켜 왔다. 이에 반해, 웹은 학교의 문을 세계에 활짝 열도록 강요하고 있다. 게다가, 학생들은 컴퓨터를 통해 서로 협력하는 학습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2.2. 인터넷 환경에서의 교육적 효과

인터넷은 다양하고 폭 넓은 학습 자료의 공유, 전 세계적인 정보 및 의사 소통의 가능성으로 학습자 중심의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을 위해 상당한 교육적 의의를 갖고 있다(손병길 외 1995; 정택희 외 1996; El-Tigi, M. & Branch, R. M., 1997; Hackbarth, S., 1997).

첫째, 인터넷은 기존의 통신 매체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그룹 과제를 행할 때 학생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시킨다. 이와 같이 인터넷의 장점은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신속하고 용이하게 많은 양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 쉽게 공동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둘째, 인터넷은 지연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e-mail, 게시판, 토론 그룹 등의 정보 교환 기능을 통하여 의사 소통을 할 때 직접 대면과는 다르게 의사 소통이 지연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므로 수신된 메시지를 이해하고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그 내용을 수정·편집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므로 메시지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소극적이고 주저하는 성격을 가진 학생에게 언어간·문화간 학습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셋째, 학습자 중심의 환경을 제공한다. 인터넷은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과정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습득한 정보와 경험으로부터 스스로 의미를 찾고 자신의 지식을 구성하는 학습자 중심의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협동을 통한 프로젝트 수행 과정을 통해 학생들 사이의 열린 토론을 촉진시키며, 세계로 열린 학습 환경(global classroom)을 가능케 한다.

넷째,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 다양한 장소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 다양한 학습자 사이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상호 존중심을 길러 주고, 다양한 관점을 계발할 기회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가치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학습이란 인간 대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사회적 경험이라는 전제 아래 면대면 수업은 수세기를 거쳐 모든 교육에 전형적이며 이상적인 수업형태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인터넷은 공간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학습자, 교사, 전문가, 학습 자원들을 서로 연결시켜줌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교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3. 국내교육현황

학생·교사·학부모간의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이전에 현재 국내 초·중·고교의 교육현황 및 정보화, 인터넷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여 커뮤니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들이 인프라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3.1. 국내 교육정보화 현황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이 올해안에 완결하기로 한 가운데 현재 교육과 관련한 정보화 수준에 대해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교육정보화 사업 현황

시·도	교육용 PC	교원용 PC	학내망	인터넷 연결 학교	학교 홈페이지	교단 선진화
서울	72%	75%	8%	8%	6%	54%
부산	74%	58%	30%	65%	21%	41%
대구	95%	77%	55%	90%	36%	64%
인천	69%	65%	27%	21%	18%	31%
광주	70%	71%	95%	97%	95%	85%
대전	79%	81%	29%	99%	21%	77%
울산	89%	87%	31%	33%	16%	37%
경기	70%	73%	94%	94%	13%	42%
강원	66%	63%	56%	56%	18%	38%
충북	90%	77%	56%	59%	38%	91%
충남	95%	78%	37%	43%	18%	53%
전북	57%	62%	36%	34%	27%	64%
전남	77%	64%	18%	26%	9%	42%
경북	74%	52%	37%	43%	10%	35%
경남	87%	66%	30%	45%	21%	63%
제주	97%	97%	15%	44%	0%	84%
합계	76%	70%	43%	51%	18%	51%

(자료원 : 대통령신년사, 2000. 2.1)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PC보급율은 비교적 높은 반면 학내망과 인터넷 보급율은 아직 높지 않으나 올해 안으로 상당히 올라갈 예정이다. 그러나 학교 홈페이지의 경우는 광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도시가 미흡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한 학생과 교사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인터넷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초·중·고교생에 해당되는 7~19세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3백만이 넘으며 이용율 또한 해당 인구의 34%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을 통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시장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 수 있다.

<표 2> 국내 연령별 인터넷 이용자 수

구 분	인구수	이용자 수	이용율(%)
7-19세	7,274,747	3,114,981	33.58%
20대	8,580,404	3,595,874	41.90%
30대	8,877,832	1,639,618	18.46%
40대	6,388,771	818,429	12.81%
50대	9,035,890	264,296	2.92%

(자료원: 2000 한국인터넷백서, 한국전산원, p 53)

학력별로는 인터넷 이용율은 대학생의 인터넷 이용율이 82.1%로 가장 높으나 초·중·고교생의 경우도 전체의 약 31% 가량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중·고교생들은 절반 정도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표 3> 학력별 인터넷 이용율

구 분		조사 표본수	이용자수	이용율
학 생	초등학생	493	65	13.2%
	중학생	195	95	48.7%
	고등학생	203	116	57.1%
	대학생	263	216	82.1%
일반인	중졸이하	777	4	0.5%
	고졸	1503	140	9.3%
	대졸이상	901	334	37.1%

(자료원: 2000 한국인터넷백서, 한국전산원, p55)

한편,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정보통신부의 국민정보화 교육목표 인원을 살펴보면 초·중·고생이 전체 대상에서 21%를 차지하며 교육대상 모두를 목표 인원으로 설정하였다. 즉, 2002년에는 초·중·고생 모두에게 정보화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들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될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4> 정보통신부 국민정보화 연도별 교육목표 인원

(단위 : 만명)

구분	교육대상	교육목표 인원('98~2002)	'98	'99	2000	2001	2002
정보화저변확대	초·중·고 (817만명)	817	271	205	206	64 (135)	71 (126)
	전업주부 (576만명)	254	35	39	48	60	72
	자영업자 (427만명)	250	35	39	48	59	69
	장애인 (105만명)	8	0.5	1.5	2	2	2

(자료원: 1999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전산원, p550)

김대중 대통령이 밝힌 '밀레니엄 교육 청사진'의 핵심은 교육정보화 기반의 조기 구축이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쉽게 접속하고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내세웠다.

- 모든 초·중·고교에 초고속 통신망 구축
- 교사, 교실에 PC무상 지급
- 저소득층 학생에 컴퓨터 교습비용 지원
- 우수학생에게 PC국비 지원
- 인터넷 사용료 5년간 전액 면제
- 당초 2002년까지 추진할 교육정보화 종합 계획을 앞당겨 연내 마무리

이러한 인터넷 환경을 연내 완비하기 위해서는 7,373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여기에 인터넷 사용료,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 전산보조원 채용 등 필요한 재원이 2,252억원으로 모두 약 1조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중·고교생의 정보화에 대한 투자는 다른 대상에 비해 월등히 많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들 수준의 향상을 위해 인프라, 교육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인터넷 인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이들의 잠재적 가치를 고려할 때 현재의 사용수준이나 인구를 가지고 평가할 수 없다.

결국 당장 내년부터 전체 인터넷 사용인구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인터넷 전용선이 설치되고 정보화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며 817만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전부 사용하게될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분야의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할 전망이다.

3.2. 7차 교육과정 운영계획

3.2.1. 초등학교의 7차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30일에 교육부 고시로 공포되었다. 2000학년도부터 적용하게 된 7차 교육과정이 6차 교육과정과 크게 달라진 점

으로는 학교 재량시간의 확대이다. 6차에서는 재량시간이 0~1시간인 점과 비교하면 7차에서는 전 학년에 걸쳐 주당 2시간씩 배당되었으며 이는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려는 의도에서 시도되었다.

<표 5> 제6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

구분 \ 학년		1	2	3	4	5	6
교과	도덕	2	2	1	1	1	1
	국어	7	7	7	6	6	6
	수학	3	4	4	4	5	5
	사회	슬기로운 생활		3	3	4	4
	자연	3	3	3	4	4	4
	체육	-	-	3	3	3	3
	음악	즐거운생활		2	2	2	2
	미술	6	7	2	2	2	2
	실과	-	-	1	1	1	1
재량시간		-	-	1	1	1	1
특별활동		1	1	1	2	2	2
주당 수업시수		25	25	28	29	31	31

(자료원: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1997, p.2)

<표 6>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

구분 \ 학년		1	2	3	4	5	6
교과	국어	국어 7	7	7	6	6	6
	도덕			1	1	1	1
	사회	바른생활 2	2	3	3	3	3
	수학			4	4	4	4
	과학			3	3	3	3
	실과	슬기로운 생활 3	3	·	·	2	2
	체육			3	3	3	3
	음악	수학 4	4	2	2	2	2
	미술			2	2	2	2
	외국어 (영어)	즐거운생활 6	6	1	1	2	2
재량시간		2	2	2	2	2	2
특별활동		1	1	1	1	1	1
주당 수업시수		25	25	29	29	32	32

(자료원: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1997, p.6)

교육과정의 편제표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7차 교육과정과 6차 교육과정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수준별 교육과정이'이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개인차가 심한 수학에서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국어, 과학, 사회과목에서는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이 도입되었다. 그리하여 수학 교과에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학년별이 아니라 단계별로 개발되었고 영어교과는 중학교 수준부터 단계형 교육과정을 적용하게 되었다(교육부, 교육 50년사, 2000).

<표 5>와 <표 6>에서 보는바와 같이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은 6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였을 때 학교별 재량시간을 학년마다 2시간씩 배정되었으며 특별활동 시간 역시 1시간씩 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과수업 이외에 학생들에게 획일적이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교육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학생들은 정규수업 이외의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은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며 방과후나 방학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7차 교육과정의 환경변화 역시 인터넷을 통한 상호작용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3.2.2. 중학교의 7차 교육과정

중학교의 7차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30일 교육부에서 고시하였으며 2001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어있다. 중학교 7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6차에서 12과목이었던 것이 10과목으로 축소되었으며 '재량활동'이라는 시간을 설정하여 주당 4시간이 배당되었다.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재량활동은 학교에서 학교장, 교사 또는 학생의 재량에 의해서 바람직한 내용을 공부할 수 있게 되어 6차의 '선택교과'의 의미도 포괄하고 있다.

<표 7> 제6차 중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

구분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필수교과	도덕	2	2	2
	국어	4	5	5
	수학	4	4	4
	사회	3	4	4
	과학	4	4	4
	체육	3	3	3
	음악	2	1-2	1-2
	미술	2	1-2	1-2
	가정	2	1	1
	기술·산업	1	2	2
	영어	4	4	4
선택교과	한문	1-2	1-2	1-2
	컴퓨터			
	환경			
	기타			
특별활동		1-2	1-2	1-2
주당평균수업시수		34	34	34

(자료원 :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1997, p.2)

<표 8> 제7차 중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	국 어	5	4	4
	도 덕	2	2	1
	사 회	3	3	4
	수 학	4	4	3
	과 학	3	4	4
	기술·가정	2	3	3
	체 육	3	3	2
	음 악	2	1	1
	미 술	1	1	2
	외국어(영어)	3	3	4
재량활동		4	4	4
특별활동		2	2	2
주당평균수업시수		34	34	34

(자료원 :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1997, p.6)

중학교에서도 역시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시간이 6시간이 배정되었다. 재량활동은 선택교과학습, 심화보충학습으로 구성된 교과재량활동과 범교과학습, 자기주도적학습으로 구성된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특별활동은 기존의 HR과 CA로 운영되던 것이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학생과 교사에게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학습하고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들간의 의사소통 공간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해짐을 알 수 있다.

3.3. 학생의 특성 및 정보파악에 대한 교사의 의식

한 학급의 담임을 맡은 교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 학생들의 신상파악 및 이들에 대한 개개인별 성격, 가정환경, 성적 등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생활기록부나 개별 상담을 통해 파악하고 있으나 단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교육저널이 총 70개교 600명의 초·중등교사를 대상으로 1999년에 실시된 학생의 특성·정보에 대한 교사 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생 특성·정보 파악에 대한 필요성 인식'에서는 '항상 필요한 일이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초·중학교 모두 78~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생 특성·정보 파악에 대한 중요성 인식'에서는 '매우중요하다'(초등학교 82.7%, 중학교 87.4%)로 가장 높았으며, '그저 그렇다'와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모두 1%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재 초·중학교 교사들의 학생정보 파악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학년초 '담임반 학생 특성·정보 파악하는 주된 방법'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생활기록부(42.8%)가 가장 높았으며, 해당 학생과의 접촉 또는 면담(30.9%)가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중학교의 경우는 해당 학생과의 접촉 또는 면담(61.5%)이 가장 높았고 학교생활기록부(19.3%)으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 수 록 생활기록부의 활용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밖에 학부모면담, 전년도 담임 또는 동료교사의 평가, 주변 학생들의 진술 및 평가 등이 있는데 10%에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학년초에 학생들을 파악하는데 생활기록부 활용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42%), 해당 학생과 면담을 통해 파악하는 경우(31%)가 다음으로 많았다. 반면 중학교 교사의 경우 학생과의 면담을 통한 파악(61%)이 가장 많고 다음이 생활기록부를 통한 파악(19%)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를 통해 교사가 학생을 파악하는데 직접적인 면담과 생활기록부에 대부분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생활기록부의 경우 학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전학년 담임선생님의 간단한 의견 정도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교사의 학생 파악에 필요한 자료들이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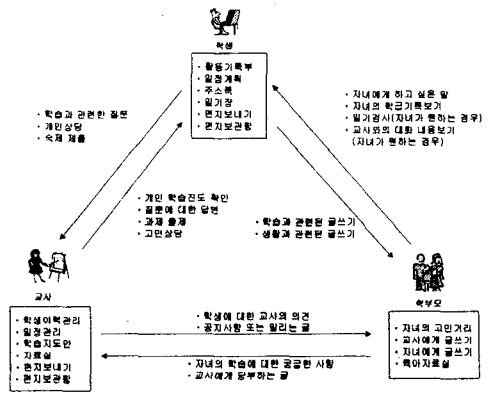
'생활지도대비 학생 특성·정보의 주요내용'에 대한 질문에 학생의 태도와 성격(초등학교 73.0%, 중학교 51.5%)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며, 다음으로 학생의 언행, 외모(복장상태), 용모(두발, 청결) 등(초등학교 14.3%, 중학교 33.2%)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외에 학생의 성적수준, 학부모의 배경수준, 학부모의 교육열의 등은 모두 5%미만으로 나타나 학생을 파악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교사들은 학생 개인의 성격과 성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들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형식적인 생활기록부의 내용이나 학기초 일회성으로 그치는 개별 면담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지속적인 학생의 환경과 성향의 변화를 관찰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방과후나 방학과 같이 교사와의 접촉이 두절된 시간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생활이나 그들간의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며, 학생들 역시 교사와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시로 발생하는 학생들의 생활 변화와 공간과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열려 있는 교사와의 의사소통 채널을 구현하여 마음을 열기 원하는 학생을 위한 공간과 기회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4. 학생 · 교사 · 학부모 커뮤니티 구현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 · 중 · 고교의 인터넷 인프라 구현이 올해내로 완비됨과 함께 현재까지의 교육방식을 상당부분 인터넷으로 활용하고 있는 환경이 제공되며, 학생 · 교사 · 학부모 3주체간 상호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명확한 집단과 대상간의 커뮤니티는 성공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파급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3주체간의 커뮤니티 구현은 반드시 많은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 전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일부 교사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형성되어 있는 소공동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소공동체간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전국의 교육 커뮤니티를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커뮤니티 구현을 위해 필요한 각 대상(학생 · 교사 · 학부모)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대상별로 면담과 방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그림 1>과 같은 기본 모델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림 1> 교육 커뮤니티의 최소 단위 및 기본기능

교육 커뮤니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최소의 단위는 한 학교를 기준으로 학생과 학생의 담임교사 및 과목별교사, 그리고 학생의 학부모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들간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학습에 관한 질문 및 개별상담 등 상호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제공한다.

학생, 교사, 학부모는 각각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이 다르며 사이트에 접속했을 경우 본인이 주체가 되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로그인을 했을 경우 자신과 관련된 대상에 대한 리스트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소공동체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학생, 교사, 학부모에 대한 기능을 각각 별도로 구축해야 하며, 더불어 개인의 신상정보를 위해 공개 여부를 확인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교육 3주체는 각 대상별로 각기 다른 요구사항과 필요사항이 있다. 예를들면, 교사의 경우 대상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같은 학교나 타 학교 교사들과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상별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달랐다. <표 9>는 학생 · 교사 · 학부모의 상호 필요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매트릭스를 통해 나타낸 것이다.

<표 9> 학생 · 교사 · 학부모 상호간 필요사항

from / to	학생	교사	학부모
개별	개인자료 및 일정관리	학생기록 및 개인자료 관리	자녀 정보 및 관련인물 파악
학생	동료집단간의 의사소통	공동작업 및 개별 상담	자녀에게 글쓰기
교사	의견제시 및 질문	동료집단간의 정보교환	자녀의 학교생활 파악
학부모	부모에게 글쓰기	공지 및 학생지도 요청	육성회 및 자녀교육 상담

이를 기반으로 3주체간 세부적인 기능과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각 주체별로 면담을 추진하였다. 학생, 교사, 학부모 각각 47명, 28명, 32명을 대상으로 방문을 통한 면담과 이메일을 통해 질의 응답 방식으로 각 주체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바탕으로 웹상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각각의 기능들을 분류하여 구체적인 구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학생을 위한 기능

학생은 교육 커뮤니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대상이며,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기능과 서비스가 이들을 중심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장시간 거주할 수 있는 많은 요소를 제공해야 한다.

① 학생 개인별 제공 기능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신의 개인 신상 및 주위 친구나 가족, 선후배 등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닌 사람들의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하며, 개인자료나 일정 등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교 수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항들에 대한 이력관리와 날짜별, 대상별 등 다양한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관리(학교, 학년, 반을 중심으로)
- 교사등록(담임교사, 과목별교사 등)
- 친구등록(같은반 친구, 다른반 친구, 다른학교 친구 등, 이때 친구의 학교와 반을 함께 등록)
- 가족등록(부모님, 형제, 사촌 등)
- 일기쓰기(초등학생일 경우 그림일기)
- 개인자료보관(학습자료 및 개인이 소유한 그림, 동영상, 음악파일을 분류에 의해 보관)
- 일정관리(가족이나 친구의 생일, 특별한 기념일 등을 등록)

② 학생-학생간의 제공 기능

학생과 학생간 기본 단위는 같은반 학생을 기준으로 하며, 검색을 통해 각 지역의 학생과의 의사소통 채널을 제공한다. 같은반 학생의 경우 수업중에 시행하는 공동작업이나 학급회의 등을 제공하며, 각 과목별 과제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한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쪽지보내기
- 자료 및 의견교환
- 공동작업 수행
- 가상 학급회의
- 취미나 관심분야에 대한 동호회 개설
- 타학교 학생 검색 및 의사소통
- 공동주제에 대한 토론방
  (예: 가출, 왕따, 이성교제 등)
- 인기투표
- 단체미팅

③ 학생-교사간의 제공 기능

학교에서 매일 만나지만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나누기 어려운 부분과 방과후나 방학중 학습지도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서 상호 질문이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과제 제출이나 개인상담 및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담임선생님께 바라는 요구사항
- 각 과목 교사에게 학습질문
- 개인상담
- 타학교 과목별 교사 검색
- 과제수행 및 제출

④ 학생-학부모간의 제공 기능

부모와 자녀간의 단절된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위해 맞벌이를 하는 부모나 다른 일로 인해 자녀와 대화할 시간이 부족한 부모와 원격지에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또 부모님 생신이나 결혼 기념일날 축하 메시지 등을 보냄으로써 가정의 화목을 돈독히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모님께 편지쓰기
- 불만 및 요구사항 쓰기
- 고민상담
- 축하메세지 보내기

4.2. 교사를 위한 기능

교사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을 학년, 반별로 구분하여 학생들로부터 올라온 질문이나 상담내용, 과제 등을 관리하며, 개별적인 학생들과의 면담이나 신상내역을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다른 과목 교사 및 타 학교 교사들과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며 학생들의 학부모와의 직접적인 채널을 통해 학생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1명이 최소 40~50명의 학생을 맡으며 구속력 또한 강하므로 이들을 통한 파급효과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들에 대한 서비스 역시 학생 못지 않게 세부적이며 다양해야 한다.

① 교사 개인별 제공 기능

자신의 학급 학생들과 부모의 리스트를 보관하고 강의시간표 및 자신이 가르치는 타 학급 학생들에 대한 사항 등을 관리하도록 한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반 학생관리(이름, 생일, 태도, 성적 등)
- 학생들의 부모 리스트
- 자신이 수업하는 학급의 학생 관리
- 학습자료 모음
- 강의시간표
- 교안자료 작성
- 관련인물 등록

② 교사-교사간의 제공 기능

교사집단은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고 한다. 같은 학교 교사, 같은 과목 교사, 타 학교 교사 등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교육의 많은 사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학생에 대한 다른 교사의 견해(이전 담임 또는 학생에 대해 잘 아는 교사를 통함.)
- 학교내 교사들과 의사소통
- 타 학교 교사들과 의견교환
- 같은 과목 교사들과의 자료교환
- 우수한 학습지도 사례 발표
- 학생지도에 대한 의견교환

③ 교사-학생간의 제공 기능

반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업내용과 기타 학생들과의 개인적인 대화나 상담을 지원하며, 여러 학생들이 한꺼번에 공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타 학교 학생들과도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학생과의 질문 및 답변
- 공동작업 지시
- 학급회의 운영
- 학급 학생들의 전체의견 수렴
- 과제지시 및 수집
- 개인별 상담
- 타 학교 학생 검색(학년별, 과목별 등)

④ 교사-학부모간의 제공 기능

교사와 학부모는 직접 만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상호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많아 아직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교사와 학부모가 만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므로 학생 지도에 필요한 사항과 부모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학생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성장환경 등을 부담없이 알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괄적인 가정통신문 발송
-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의견 기재
- 학생의 가정환경 파악
- 학생에 대한 개별적인 질문
- 부모의 의견 수렴

4.3. 학부모를 위한 기능

자녀 교육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반면 자녀가 무엇을 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환경을 지니고 있는 집단이 학부모이다. 이들에게는 자녀와 자녀의 담임 및 과목별 교사들과의 직접적인 채널을 가지며, 학부모들간 가상공간에서 육성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① 학부모 개인별 제공 기능

많은 기능보다는 꼭 필요한 기능만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자녀의 활동상황을 관찰함으로써 현재 자녀의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지만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자녀가 공개를 허용한 범위에서 관찰 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녀의 담임 및 과목별 교사 파악
- 자녀의 수업시간표 파악
- 자녀 생활관찰 기록표
- 보낸편지 및 받은편지 관리
- 자녀 친구목록 보기

② 학부모-교사간의 제공 기능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궁금해 하지만 교사를 찾아서 만나기는 어려운 여건이 많다. 여기서는 교사와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에 대한 궁금점을 물어보고 당부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담임 및 교과목교사에게 글쓰기
- 자녀의 학습태도에 대한 질문
- 격려 및 축하 편지쓰기

③ 학부모-학생간의 제공 기능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비교적 적은 부모와 평소 자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글을 통해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공개된 범위내에서 자녀의 개인기록이나 상담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 및 개인적인 심리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녀에게 편지쓰기
- 자녀의 개인정보 파악
- 자녀 친구리스트 보기 및 글쓰기
- 축하 및 격려 메시지 보내기

④ 학부모-학부모간의 제공 기능

사이버 육성회와 다른 가정에서 발생하는 자녀와의 갈등과 해결방안 등 같은 부모 입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의문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같은 학급 부모 검색 및 글쓰기
- 우수한 자녀지도 사례 올리기
- 사이버 학부모 간담회
- 타 학교 학부모 검색 및 글쓰기

5. 결론

교육과 관련한 수많은 사이트가 생겨나고 기존 교육사이트는 그 규모를 대형화해 나가는 상황에서 교육의 핵심 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의 커뮤니티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이트는 거의 없으며, 교육사이트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명확한 수익모델을 제시할 수 없는 커뮤니티 사이트의 특성으로 대부분의 교육사이트는 유료화를 통한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 주체들의 요구사항은 학습자료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이 있고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다른 대상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울타리 안에서 또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여 규칙과 규정에 의해 일방적인 학습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라는 특성이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보다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결국, 학습이 아닌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습득은 결코 아니며, 특히 성장과정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초·중·고등학생에게는 지도하는 교사와 부모, 그리고 친구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그 무엇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에서 보다 더 효율적인 교육 효과를 얻기 위한 대안중의 하나로 인터넷을 활용한 열린 마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확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간에 대화의 기회를 보다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학교내 문제점과 가정의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소위 학교의 '왕따'나 가출과 같은 대화 부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를 일부분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둘째, 교육이 수업시간만이 아닌 방과후나 방학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개개인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닌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도시에 비해 비교적 많은 해택을 받을 수 없는 시골이나 산간지방의 학생과 교사들에게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고, 반대로 도시 학생들은 시골 및 기타 다른 지역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넷째, 교복착용 및 두발규제 등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견해를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들이 함

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사이버 포럼 등을 개최하여 활용 할 수 있다.

다섯째, 학생이나 교사들이 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동호회를 운영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전국 사이버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여섯째, 향후 국가별 교육환경과 특성 등을 파악하여 외국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 커뮤니티를 구현함으로써 전세계적인 교육 커뮤니티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커뮤니티를 구현하고 운영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커뮤니티 사이트는 회원수에 따른 효과가 제곱에 비례할 정도이므로 초기 회원확보를 위한 마케팅 및 유인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일반적인 커뮤니티 사이트가 가지는 음란성 있는 채팅, 욕설, 불건전한 자료의 유포, 특정인에 대한 일방적인 인식공격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자녀에 대한 자료(일기, 상담내용 등)를 부모가 강요하여 보기를 원하는 경우나 사이트 관리자에게 요청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강숙희, 「학습 환경으로서의 웹이 주는 교육적 의미」, 한국교육저널, 1999
[2]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1997
[3]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1997
[4] 교육부, 「교육 정보화 현황」, 2000
[5] 공항중학교 학부모 연수자료, 「7차 교육과정 운영 및 활용방안」, 2000
[6] 전자신문기사, 「전국 모든 초·중·고에 연내 인터넷망 구축」, 2000. 9
[7] 조배원, 「전자수업안 학습지 제작활용」, 주월초등학교, 2000
[8] 최상근, 「학생의 특성·정보에 대한 교사 의식, 활용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저널, 1999
[9] www.i-biznet.com, 「커뮤니티/채팅에 관한 기사」, 2000
[10] www.i-biznet.com,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한 모범 사례」, 2000
[11] 박춘애, 「스스로 더불어 사는 학급만들기를 통한 '왕 따스함' 채우기」, 광주 치평중학교, 2000
[12] 서희전, 「초·중등학교에서의 인터넷 활용 연구동향」, 에듀넷 연구사례, 2000
[1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초·중등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 2000. 2.
[14] 한국전산원, 「한국인터넷백서」, 2000
[15]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1999